

# 사망사고 한국타이어 위법사항 699건 적발



한국타이어 대전-금산공장. 사진=한국타이어

## 대전공장 LTR성형공정 사망 사고로 대전노동청 특별감독 공장장 등 범위반 조사... 위반사항 699건, 과태료 3억9천만원 "라인-스텝형 현장 작동관리 등 관례체계 강화" 제시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8일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 대전공장 LTR성형공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69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장장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노동청의 특별감독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1명을 대규모 투입해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 '사고성 중상해재해 ZERO'로 이어지도록 실시했으며 안전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편과 구체적인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해 그 이행사항을 노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노동청의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699건(103조항)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499건(82조항)에 대해서는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고,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200건(21조항)은 과태료 3억 9000여 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작동,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행정조치해 철저히 개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노동청 특별 감독반은 한국타이어의 안전보건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증원을 통해 라인-스텝형 안전관리조직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작업절차 마련, 설비별 안전장치 표준화 및 작동 관리 등

을 통해 센서 등 방호조치가 정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전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 대전공장을 총괄하는 공장장을 비롯해 목격자, 동료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성 산업재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특별감독 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도록 노동자와 회사, 대전청이 참여하는 기존의 '노·사·정 TF'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을 들어 안전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사업장 전체의 안전의지가 고양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계속되는 안전보건감독에도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고, 금번 특별감독 시에도 안전조치 위반이 다수 적발되어 유감스럽다. 범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하고,

무엇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사·정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특별감독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오전 5시 7분쯤 충남 금산군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방면 금산인삼랜드 휴게소 인근 하행선 190km 지점에서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통근버스가 앞서가던 23톤 탱크로리를 들이받는 사고로 아르바이트생 A씨(21)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도중 사망하고 운전기사 D씨(57) 등 버스 탑승자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B씨(40대)가 지난 14일 오후 3시쯤 타이어 성형기에 끼이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대전 A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4일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타이어 성형기는 3개의 안전센서가 설치돼 있어 작업자가 다가면 자동으로 멈추게 돼 있으나 사고 당시 안전센서가 오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태 기자

# 제천, 각종 모임으로 213명 확진

## 이상천 제천시장 "죄송스러 시민 얼굴 못 보겠다"

이상천 충북 제천시장은 최근 김장모임과 종교모임 등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정말 죄송스러워서 시민들의 얼굴을 못 보겠다"고 토로했다. 이 시장은 19일 뉴데일리와 전화 통화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자 중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19일 3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어느 정도 확산세가 꺾이면서 잡히고 있다. 지금은 김장모임 집단감염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어 "최초 전파자 동생과 모친에 이어 신규 확진자 외에는 없으며, 명지병원 확진자의 추가 동선도 거의 없어 2-3일전부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확산 고리가 차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췄지만, 3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를 엄격하게 추진하고 있는 데다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한 것도 확산세의 고리를 끊는데 주효했다"고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특별히 전했다.

이 시장은 "제천 집단감염은 지난 11월 25일 A단체 간부인 제천 25번 확진자가 인천 미추홀구 관련 확진자인 10번과 접촉한 뒤 감기 증상이 발현됐



이상천 제천시장이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천시

다. 그러나 이 분은 제천이 청정지역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데다 너무 깊이 너무 많이 비집고 다니면서 사회활동을 하는 바람에 코로나19 확산 폭이 정말 컸다"며 김장모임 및 종교단체 집단감염 등이 발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지칠대로 지친 그는 "최근 3일간 발생한 코로나19는 격리자 중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젠 잡히고 있다"며 "최근 역학조사관 3명을 투입하고 있는데, 2-3일 내 제천의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충북 제천에서 지난 8월 22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김장모임과 종교모임 등을 중심으로 지난 11월 67명, 12월 142명이 확진되는 등 19일 12시 현재 확진자는 모두 213명으로 증가했다.

김정원 기자

# 맥키스컴퍼니 노조, 前사장 '엄벌' 촉구

## 수십억 횡령혐의

대전의 향토기업으로 '계속산 횡탈길'을 전국 명산으로 키운 (주)맥키스컴퍼니가 자회사 등 전 박 모 대표의 수십억 원 횡령혐의와 관련, 검찰에 고소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맥키스컴퍼니 노조는 23일 전 대표 박 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그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며 반복적으로 노동조합과 전 직원들이 23일 대전지검에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맥키스컴퍼니 이경태 노조위원장 명의의 탄원서에서 "주류시장의 변화 속에서 대기업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면서 "회사 설립이후 공장이

등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으며, 임원들이 급여를 반납하는 등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회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박 씨는 맥키스컴퍼니가 투자한 (주)하노와 (주)선양대야개발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 뉴스에서나 보던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회사운영자금을 착복한 사실도 알게 됐다"면서 "그가 빼돌린 수십억 원의 자금은 맥키스컴퍼니 전 직원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온 것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금 회수만을 학수고대하던 직원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한편 맥키스컴퍼니 관계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노는 대전지검에 '박 씨가 50억 원 상당의 회사 운영자금을 횡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정원 기자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청송군이 함께 합니다

## 빨간 맛 즐겨? 노란 맛 즐겨?

형형색색 形形色色 청송사과,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사과도 '컬러'가 트렌드입니다.

'빨간 맛' 부사, 청송사과의 대표선수입니다. 이제는 '노란 맛' 황금사과(시나노 골드)가 사과 마니아의 입맛을 유혹합니다.

과즙 많고 달콤한 '빨간 맛' 청송부사. 아삭아삭, 새콤달콤 '노란 맛' 황금사과.

청송사과는 색깔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청송사과, 8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사과 브랜드 부문)